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 브라질, 칠레, 페루 -

2023.11

우리의 여정의 목적은,
선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를 반영한 사업의 큰 방향을 공유하는 것임

목 차

I. 국외공무출장 개요	1
II. 출장국 및 방문지역 개요	3
III.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주요 내용	8
IV. 정책현장 답사 및 인터뷰 주요 내용	20
V. 공주·부여·청양생활권 활성화 방안	36

I. 국외공무출장 개요¹⁾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3년 10월 30일(월) - 2023년 11월 10일(금) (8박 12일)
- 출 장 국 : 브라질, 칠레, 페루
- 출 장 자 : 총 10명(2023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충남연구원 이상준)
- 연수방법 : 연수국 관련기관 방문, 현장견학 및 관계자 토론 등

2. 출장목적

- 외국사례 견학을 통해 3개 시·군이 협력적·공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모색
 - 폐건축, 쓰레기 매립장 등 도시 유휴자원을 활용한 생태공간으로의 재생 사례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방법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정책 등 연계협력 사업 발굴
 - 세계유산 보유 도시로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사례

3. 참석자 명단

소속 (부서)	직위 (직급)	성 명
계		10명
공주시	시 장	최원철
공주시 (문화재과)	고도육성팀장	조진석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주무관	박현규
부여군	부군수	소명수
부여군 (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	이종록
부여군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장	이기태
청양군	군 수	김돈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청양군 (행정지원과)	주무관	전용옥
충남연구원	기획조정팀장	이상준

1) 본 국외공무출장은 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와 충남연구원이 함께한 것으로, 출장결과보고서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작성함

4. 주요 일정 및 방문기관

구분	방문지역	주요내용
제1일 10/30 (월)	인천	인천 국제공항 출발 → 프랑크푸르트 도착
		프랑크푸르트 출발 → 상파울루 도착
제2일 10/31 (화)	브라질	역사·문화 자산 재생 사례(산토스 구장 박물관, 커피 박물관) 탐방
		상파울루 출발 → 쿠리치바 도착
제3일 11/1 (수)	브라질	[기관방문] 쿠리치바 도시 계획 연구소 방문 -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통한 환경생태도시 쿠리치바 조성 사례 탐방
		폐채석장, 쓰레기 매립장 등 님비시설 재생 사례 I 탐방(오페라 하우스, 지혜의 등대)
제4일 11/2 (목)	브라질	폐채석장, 쓰레기 매립장 등 님비시설 재생 사례 II 탐방(탕구아 공원, Escola Municipal de Sustentabilidade)
		도심 속 유희부지 활용 도시 재생 및 활성화 사례 탐방(식물원)
		쿠리치바 출발 → 이과수 도착
제5일 11/3 (금)	브라질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폭포 탐방 -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의 조화를 통해, 세계적 관광 및 문화 자원화 방안 탐방
제6일 11/4 (토)	칠레	이과수 출발 → 상파울루 도착
		상파울루 출발 → 산티아고 도착
제7일 11/5 (일)	칠레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 유산지 발파라이소 Cerro Alegre 벽화 골목, 소토 마요르 광장 탐방 -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2006)으로, 예술인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예술 중심의 원도심 재생 사례 탐방
		산티아고 출발 → 리마 도착
제8일 11/6 (월)	페루	리마 출발 → 쿠스코 도착
		[기관방문] 문화재 관리국 방문 - 쿠스코 및 마추픽추 보존 노력과 과정, 활성화 사례 탐방
제9일 11/7 (화)	페루	마추픽추 탐방 - 천혜의 자연자원에 대한 보존, 관광·문화적 활성화에 대한 방안 탐방
		마추픽추 문화재관리국 - 주민과 함께하는 마추픽추 보존 및 관리, 관광적 활용 방안 탐방
제10일 11/8 (수)	페루	쿠스코 출발 → 리마 도착
제11일 11/9 (목)	페루	리마 출발 → LA 도착
제12일 11/10 (금)	인천	LA 도착 → 인천 도착

II. 출장국 및 방문지역 개요

1. 출장국 개요

1) 브라질 개요

- 브라질은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는 면적을 지님
 - 수 도 : 브라질리아 (BRASILIA)
 - 정 치 : 연방공화제
 - 인 구 : 216,422,446명
(백인계43%, 메스티소 48%)
 - 면 적 : 8,515,767km²
(남한 면적의 85배)
 - 공용어 : 포르투갈어
 - 종 교 : 카톨릭(65%), 개신교(22.2%)
- 브라질은 1500년 포르투갈사람 베드로 알바레스 카브라알이 영토로 선언한 이후 유지됨
- 아마존 밀림에서 현대 문명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원주민이 있는가 하면 미래 지향적인 것을 추구하는 브라질리아 인공 도시, 살바도르의 흑인 문화, 남미 최대의 상업 도시인 상파울루 등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



2) 칠레 개요

- 남북 길이 4,329km, 동서 폭 180km의 가늘고 긴 모양
 - 수 도 : 산티아고 (Santiago)
 - 정 치 : 연방공화제
 - 인 구 : 19,621,055 명
(백인 및 혼혈 90%)
 - 면 적 : 756,096km²
(한반도의 8배 이상)
 - 공용어 : 스페인어
 - 종 교 : 가톨릭 45%, 개신교 18%



- 6세기까지 페루 잉카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1540년 스페인에 의해 점령을 당하였고, 그 후 3세기 동안 칠레는 식민지 시대를 겪음
 - 1818년 2월에 칠레는 독립을 선언함
 - 1879년 ~ 83년 태평양 전쟁에서 페루, 볼리비아와 전쟁을 하여 영토를 넓힘
- 북쪽의 건조한 사막 지대부터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산림 지대와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지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고 있음

3) 페루 개요

- 한국의 약 13배 크기에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와의 국경을 접함
 - 수 도 : 리 마 (LIMA)
 - 정 치 : 연방공화제
 - 인 구 : 34,255,802 명(인디오25%, 메스티소60%)
 - 면 적 : 1,285,220km²
(한반도의 5배 이상)
 - 공용어 : 스페인어
 - 종 교 : 가톨릭 94%
- 적도 아래 부분 부터, 남위 18도 사이에 걸쳐진 페루는 이 위치적인 영향으로 일 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사막 부터 표고 6,000m급의 고봉이 이어지는 안데스 고지, 아마존 유역까지 다양한 기후를 보이고 있음
- 남미 최대 제국을 이루었던 잉카 문명, 차빈 유적 등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유적들이 많은 신비로운 나라로 평가됨



2. 출장지역 개요

1) 브라질 커피박물관 (커피거래소)

- 상파울루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산토스는 1546년 포르투갈 귀족 Bras Cubas가 설립한 브라질 상파울루 주의 자치시로 커피 수출하는 항구로 유명한 도시
- 브라질 커피의 역사는 프랑스령이었던 기이나로 부터 브라질 군인이 커피 묘목을 가지고 오는 데부터 시작됨
- 산토스의 커피 박물관은 원래 커피 가격을 책정하던 커피거래소로 사용되던 곳임
- 현재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커피 문화 교류 문서와 물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음



2) 쿠리치바 (Curitiba)

- 쿠리치바는 1995년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에 의해 세계 12개 모범도시로 선정되어 '희망의 도시'로 명명되었으며, 유엔(UN)에서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됨
- 쿠리치바는 1970년대까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었지만, 건축가 출신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계획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가지의 바람직한 발전뿐 아니라 도시의 사회, 문화, 교육,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 쿠리치바의 교통 및 환경 정책은 우리나라의 버스 전용 차선과 광역 버스 정책 등에도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교통 시스템을 통한 대중교통 분담률이 80%에 이르며, 교통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얻고 있음
 -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대신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 시스템(BRT, Bus rapid transit)을 구축하여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함
 - 세계 최초로 1974년부터 주요 간선 교통로를 따라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하고 순환버스 노선을 도입했으며, 다양한 지선을 연결함
 - 정류장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승차 전 요금을 먼저 지불을 하도록 하여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엔진 공회전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도록 함



- 환경적으로 하천관리 및 공원·녹지 조성, 유희 및 낚시시설의 재생 선도사례 보유
 - 채석장, 쓰레기장을 활용한 공원, 시민 환경 교육장 등 조성 추진



3) 이과수 폭포

- 원주민들의 언어로 Igu는 ‘물’, Acu는 ‘장대함’이라고 함
- 세계 3대 폭포 중 가장 장엄하다고 하는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등 3개국 국경에 위치해 있음
- 현재 브라질 측 17만 헥타르와 아르헨티나 측의 22만 5천 헥타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4) 발파라이소 (Valparaiso)

- 비냐 델 마르에서 9km떨어져 있는 곳으로, 19세기에 남미 대륙의 핵심 항구였음
- 변화한 지역이었지만 시대적 흐름 속에 낙후되었는데, 예술인 등 빈민들의 입주가 된 이후 벽화 등 예술 중심의 원도심 재생이 이루어진 지역
- 2006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5) 쿠스코 (CUSCO) 아르마스 광장

- 쿠스코는 케추아어로 배꼽이란 뜻인데 13세기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중앙 안데스 일대를 지배한 잉카 제국의 수도로, 번영의 절정기를 맞이하였던 당시의 쿠스코는 정연한 시가지, 아름다운 건물, 거대한 신전 등을 보유하였음
- 쿠스코의 아르마스 광장은 구시가지의 중심지이며, 광장을 둘러싸듯이 옛 건물들이 남아있고 광장 한구석에는 피사로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는 지역임
- 쿠스코의 아르마스 광장은 잉카 제국 시대에는 와카이파타, 아우카이파타라고 불리는 두 곳으로 구분된 광장임
 - 현재는 대성당, 레스토랑, 여행사, 선물상점이 모여 있는 관광 거점으로 활용됨
 - 아르마스 광장에 접해 있는 대성당은 잉카 시대의 비라코차 신전 자리에 세워진 것으로, 1550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여 100년 후에 완성된 성당임



6) 마추픽추 (Machu Picchu)

-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우루밤바강을 따라 114km 내려간 지점에서 수면위로 부터는 400m, 해발로는 2,280m 지점에 세워진 5km 크기의 잉카 유적임
 -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중도시'라고 불림
- 케추아어로 '높은 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마추픽추는 1534년 정복자인 에스파냐인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만코 2세' 이하 사이리 토파크, 티투 쿠시, 토파크 아마르 등의 잉카가 거점으로 삼았던 성채도시로 보임
-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에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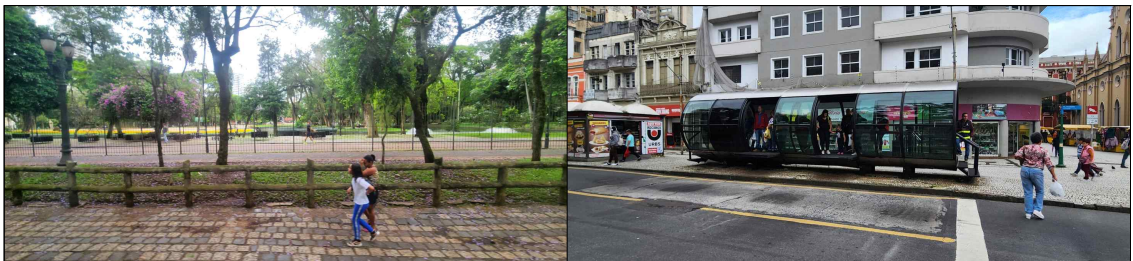


Ⅲ. 기관 방문 및 인터뷰 주요 내용

1. 환경생태도시 쿠리치바 IPPCU(쿠리치바 도시연구소)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주도

1) 개요

- 도시환경연구소는 시 산하기구로, 정권이 변경되어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
 - 능력이나 현재까지, 미래의 예상되는 실적이나 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함
- 쿠리치바에서는 공원 조성 시 이민자(독일, 우크라, 일본 등)의 특성 및 민족색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팬데믹 이후 브라질 경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빈부격차 매우 심함(40% 빈민)
- 브라질 남부는 유럽 이민자 중심으로(쿠리치바 등) 구성되었으며, 흑인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과거는 농업 중심이었는데, 90년대 이후 산업도시(자동차회사 운영 등)로 전환됨
 -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바람 방향 반대 방향에 조성, 매연 없는 산업 유치 등) 추진 중
- 교통체계 혁신을 추진한 이유는, 1) 돈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음, 2) 시민만을 생각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됨
 - 교통체계도 미래를 고려하여 “전기” 중심으로 변화시킬 예정임
- 주변도시를 합치면 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쿠리치바 내에는 170만명이 거주함
 - 거점도시와 주변도시를 교통체계(환승시스템)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있음
-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난항을 겪고 있음
-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적극적임
 - 시에서는 가가호호 대상 집 앞 기둥(전신주, 나무 등)에 쓰레기통 설치 및 관리
 - 고양이 등 쓰레기 훼손 방지, 원활한 쓰레기 관리 측면
 - 시에서는 취약계층 등 활용 수시 쓰레기 수거 및 관리 노력 경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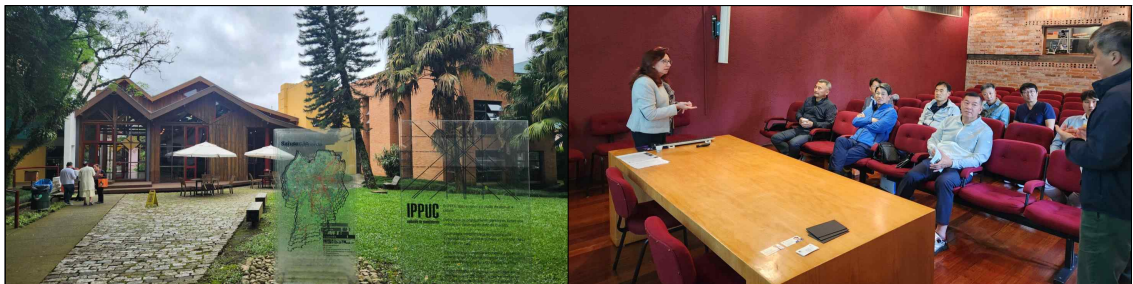
2) IPPCU(도시연구소)의 쿠리치바 정책 설명

○ 1965년 연구소 설립

- 설립 이유는 2~3년 전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후 시행을 위한 조직 필요성에 의해 설립

○ 연구원의 미션은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구나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지님

- 새로운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계획 및 실행 역할



○ 여기서 모두 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최적화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 기관의 운영 범위는 쿠리치바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관은 시장 산하 다양한 연구소 및 재단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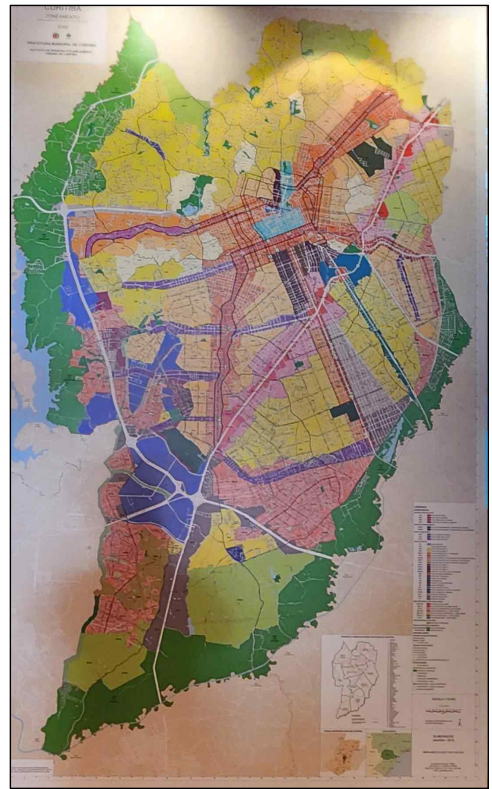
- 시청 기구(환경, 교통, 스포츠 & 젊은이 담당 등)와 다각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도시연구소는 이사님(시장 임명/총재 역할 수행), 법, 예산, 홍보 등 조직 구성, 그리고 쿠리치바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결정권 없음) 위원회 등 포함
- 지역 내 모든 데이터 담당-시에서 연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전달, 도시계획을 수립 시 핵심이 되는 대중교통, 도로, 토지사용권 담당, 연구 및 모니터링 담당은 실제 연구 및 실행 시 참여(예, 새로운 버스정류장 필요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 등)

○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 연방 등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쿠리치바 마스터플랜은,

- '43 인구 12.7만명 / 원형 개발 모형 추진
- '64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 / '65년 기관 설립
- '66 원형 개발(50만명)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개발(동서남북 도로 중심 개발 및 확장)
- '01 연방에서 도시 개발 방향 발표
- '04년 새로운 마스터플랜 개발(160만명, 동서남북 도로 중심과 연계된 새로운 도로 개발축 설정)
- '15 큰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발 중요성 확대 및 개발 추진

- 도시계획을 할 때 중요시 하는 것은 토지사용법, 도로망, 대중교통을 중요시함
 - 경제 등도 중요하게 하며, 시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이는 '70년대부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도로의 단면을 보면, 도로 연접부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SE지구/토지사용법적용), 큰도로 옆 도로는 도로망 연결을 중요시, 큰도로에서 멀리 가면 갈 수록 건물 규모 축소, 인구 밀집도 저하
 - 지도로 보면 토지사용법이 적용되는 지구, 도로망, 대중교통 연계도를 순서대로 보여줌
 - 큰 길을 주변으로 큰 건물 등이 선형으로 배치됨,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밀집도가 낮아짐
 - 산업지역은 도시 서쪽으로 조성됨/산업단지는 '70년대 조성되었는데 서쪽으로 조성되어 바람방향 반대로 매연 등이 도시 바깥으로 나감
 - 지속적으로 매연 없는 공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동쪽 도시는 매연 피해가 없음)
- 강이 4곳으로, 동쪽으로 이과수 강이 흐르고 700킬로 밑에 이과수 폭포 연결
 - 강 주변으로 녹색지역으로 만들고 자연보호구역 설정
- 도로망도 등급을 나눴는데, 인구밀집도와 연계하여 버스가 다니는 곳, 자동차만 다니는 곳으로 구분됨
 -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도로를 구분하여 조성(토지사용법, 도로망, 대중교통 연계)
 - 큰 도로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이들 사이에 마을을 연계하는 지역교통, 외부 지역을 있는 광역교통망이 구분됨
 - 큰도로를 중심으로 버스전용도로(붉은색)와 자동차가 다니는 구간(속도 낮음), 큰도로 옆에 일방통행으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조성(큰도로와 작은도로 사이에 큰 건물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90년 도에 원형 정류장 설치
 - 탑승시 버스와 같은 높이로 탑승하도록 하여 빠르고 안전한 탑승 지원
 - 가운데 중심도로와 주변 큰 건물 조성
 - 74년 버스(하루 5.4만), 현재 버스(하루 40만명 수송)
 - 40년 동안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가 큰도로 축을 따라 선형으로 개발되고 있음

- 도로 주변 고층-점차 저층저밀/저밀지역(녹색)에 공원을 조성하여 홍수 방지용 저류지 형태로 조성
- 공원이 강 주변에 많이 설치되었는데, 비가 올 경우 홍수 방지용으로도 조성하여, 큰 비가 와도 공원이 잠길지언정 도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성함

○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환경보호도 되고, 레저나 문화적 활동, 시민 활동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홍수 방지 목적

- 문화적으로 공원 조성 시, 인구가 이민자 중심(폴란드, 독일 등)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이민국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조성(폴란드 공원 등)
- 채석장을 재활용하는 공원 조성이 있음(대학, 나무로 만든 오페라 하우스 등 조성 계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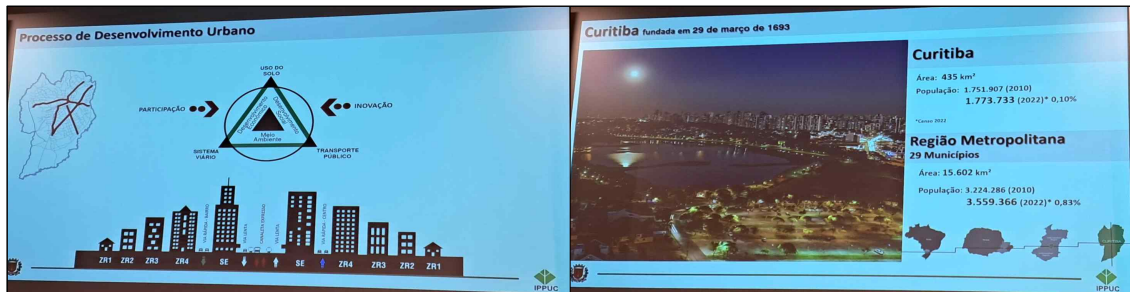


○ 행정경계 구역별로 조그만 시청 지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행정처리 추진, 버스 사용 시 도장을 받으면 올 때는 돈을 내지만 갈 때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

- 항상 대중교통 시설 옆에 조성하여 이용 편의성 도모

○ '20년 환경 변화 대응 '50까지 탄소 제로 목표

- 환경변화 대응 전략적인 실행전략(5가지) 마련(환경과 도시의 양질화, 에너지 효율화(재활용 에너지자원), 쓰레기 절감과 재활용,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전기차 도입), 도시 혁신 및 변화(데이터 종합 및 실행))
-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에너지 효율화, 재활용, 전기차 도입 등 목표로 추진 중
- '5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1) 자전거를 47%→85% 상향, 2) 친환경 에너지 사용 자동차 보급률(전기차 등) 39.6%→100%, 3) 개인적 자동차 비중을 46%→7% 조정(대중교통 확대 노력 중) 노력 중
- 1) 태양열 사용 40% 확대, 2) 기존건물도 100%로 조성, 3)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100% 신재생 에너지 사용
- 매립장 쓰레기도 80%→10%로 절감 노력(재활용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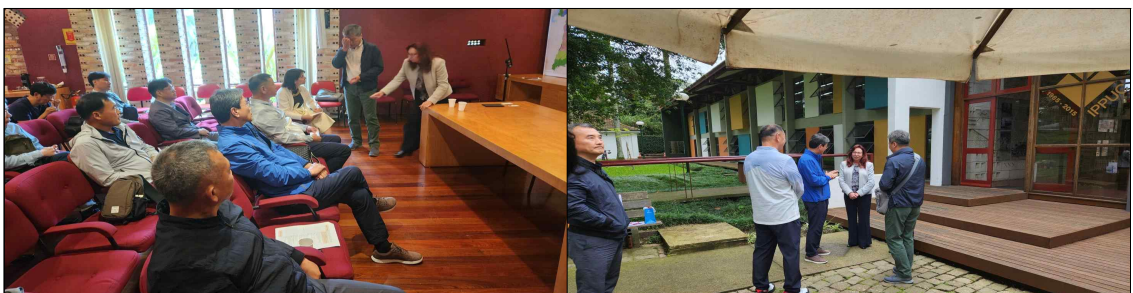


- 개인 자동차 축소 및 보행 확대를 위해, 시내에 보행자 전용 공간 조성(역사적 공간 연계)
 - 차 이용 및 주차 확대를 위해, 보행공간 확대, 커피숍 등 조성 확대를 위한 소통공간/레저 공간 확대 추진
 - 걸을 때 혜택을 주는 혜택 : 역사지구, 시내에 걷는 공간 확대, 차도 축소, 가로시설물 (가로등 등) 낮게 설치, 나무 등 많이 심고 있음
- 구 군대건물(유허공간)을 활용한 극장 조성
 - 우범지대를 재활용하여 시민 활동 공간으로 조성
- 자전거도로를 80년대 조성 시 공원 연결용으로 270킬로미터만 조성하였는데 조성 (레저시만 사용한다고 인식), 지금은 출퇴근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08킬로미터까지 확대 조성 추진 중
 -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였다가 실패했었는데, 환경 수도 조성을 위해 다시 금년 부터 시행 중
- 대중교통에서 매연이 나오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 예정 중
 - 버스전용도로가 기존에는 2차선이었는데, 혼잡하였음
 - 버스정류장을 확장하여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브릭스 은행 자금을 차입하여 추진 중)
 - 버스정류장에 인터넷 설치를 통해 버스 정차 시간, 자전거 이용 시스템 등 도입 중
 - 개인이 목적지 설정 시 목적지까지 가는 법, 비용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 중
- 태양열을 사용하는 패널을 설치
 - 모든 공원에 설치 중, 공공기관 건물, 터미널, 쓰레기 매립장 등 설치
 -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통해, 시청 건물에서 사용하는 30% 전기 발생
 - 터미널에 설치하여 사용료가 60% 절감 예상
- 시민들이 건강하게 식사를 하기 위한 음식 준비가 필요한데, 도시 속 농장/농토를 만들어 채소를 재배하여 공급하고 있음
 - 도시 남측 빈민가를 대상으로, 강 복원, 강 주변 공원 조성, 태양패널 보유 주거 조성,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꽃 재배 단지 조성 → 쓰레기 매립이 심하여 도시 농장/농토는 장기적으로 추진 할 예정임

- 도시 남측 도시 조성을 준비 할때, 도시연구소와 거주민 간 지속적인 미팅과 소통을 통해 계획 방향을 모색함
 - 주거 문제 해결만이 아닌 꽃 재배단지를 통한 일자리/ 소득 창출, 하수도를 통한 홍수 시 범람 방지 등 노력
 - 기존 거주민이 문제가 되기에, 이들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였는데,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니깐 다시 이 곳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사와 동의를 표명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함
- 사회데이터->HIPERVISOR
 -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심지어 시청 외 우버, 핸드폰 사용 회사, 구글 데이터 등),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모색 중
 - 모여진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개인적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지금 추진 중인 것은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도시 조성 추진 중
 - 교통체계, 에너지, 환경보전(매립 쓰레기 축소, 녹색지역 확대), 타 분야 및 전문가, 기관 간 연계, 연계기관&시청 등과 데이터 공유 등 추진

3)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시장) 60년 전 설립 후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 당시 예측한 인구증가, 도시 계획과 정합되어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는지?
 - (IPPCU) '45, '64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였던 것이 인구의 급증으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였음.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하여 왔는데 시기별로 적절한 대응을 해서 큰 변화가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기존 계획을 기반으로 부가와 조정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었음)



- (공주시/시장) 3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쿠리치바는 인구감소가 없는지?
 - (IPPCU) 쿠리치바도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본과 협력 방안 모색 중 : 인구에 집중하여 걷고, 대중교통에 집중하는 도시 조성 노력

- (공주시/시장) 미래도시를 보는 듯한데, 시민에 대한 많은 통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IPPCU)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더 좋은 결과를 위해 함께 노력 중임
 - (IPPCU) 염려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충남연구원) 고령자, 실직자에 대한 복지 정책은 어떤지?
 - (IPPCU) 저소득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상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시민의 도로를 조성하여 그 공간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활동이나 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음
 - (IPPCU)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연방정부에서 추진 중으로, 실제 운영은 연방정부 프로그램 받아서 시청에서 추진 중임
- (청양군/군수) 80년 정도 운영 중인 기관인데, 도시연구소의 운영 방식은 어떤가?
 - (IPPCU) 시청 기관이고 시청직원임(소수만 계약직임), 이사였던 분들이 시장으로 선택되기도 하여, 가끔 정치적으로 외면받은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 예우하고 전문성을 인정 받음
- (청양군/군수) 쓰레기매립장 재개발 등 새로운 변화나 프로젝트 추진 시 주민의 반발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극복하였나?
 - (IPPCU) 항상 큰 문제인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방치된 부지를 찾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주민 주도의 재활용 방안 모색 확대 중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쿠리치바 성장 시 주변지역의 쇠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연구하는지?
 - (IPPCU) 10년 동안 오히려 반대 상황이었음(쿠리치바 감소, 주변지역 증가 : 대중교통편의로 인해 쿠리치바가 아닌 주변지역 거주)
- (부여군/부군수) 쿠리치바의 도시계획을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IPPCU) 처음 참여한 사람이 매우 열정적이었고, 도시를 사랑했으며, 연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변수가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추진 노력하였고 시청 등에서 답을 요구할 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IPPCU) 정부, 시장이 바뀌어도 기초를 바꾸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공주시/시장) 연속성 측면은 인정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신규 인력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IPPCU) 항상 혁신, 창의적 해결책은 있어야 하지만 계속 정책 방향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함
 - (IPPCU) 전문 지식이 고립되면 안되기에 대학 등과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고 역량강화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여군/부군수) 도시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IPPCU) 사회의 변화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색하는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IPPCU) 계획이 없다면 효율적 도시 발전이나 개발이 안될 것이고, 시민에게 안좋은 결과를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예산 지출 등)
- (부여군/부군수) 성공만이 아닌 실패에서도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영자전거 사업이 실패한 이유와 이를 통한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IPPCU) 처음에는 인프라가 부족했고, 기업에서 운영에 참여했는데 잘 이루어지 못했음 (공영자전거 정차와 회수 등)
 - (공주시/시장) 공주 등 한국에서는 RFID시스템을 접목하여 정차와 회수 등 문제 해결을 통해 사업 추진 중
- (충남연구원) 도시연구소의 지속성을 위해 시청이 무엇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 (IPPCU) 시장의 리더쉽도 중요하지만, 국장 등 실무진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함

4) IPPCU 홍보팀 인터뷰

- 어떻게 kuri치바 그 중에서 도시연구소를 선택한 방문과 출장을 오게 되었는지?
 - (공주시/시장) kuri치바 도시연구소가 도시계획에 대표적인 기관이기에 방문하게 되었음, 친환경, 기후위기 등의 주제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게 됨
 - (부여군/부군수) 부여, 공주, 청양은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kuri치바의 그런 노력과 대안을 배우고 싶어서 방문하였음
 - (청양군/군수) 도심 쇠퇴와 신규 도시 발전에 대한 모델을 배우기 위해 방문함
 - (공주시/시장) 한국에서도 2030, 2040 계획을 수립하는데 kuri치바의 사례를 배워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함

5) 시사점

-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은 항상 혁신,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도시에 대한 정책적 틀과 방향은 유지되어야 함
- 도시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과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도시 계획을 위한 다각적 정보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정책 수립의 목적은 1) 돈과 상관없이 실현가능한 것, 2) 시민을 우선하는 것임

2. 페루 쿠스코 문화재 관리국 / 지역주도 역사와 개발, 재생 I

1) 개요

- 1949년 부터 쿠스코는 보존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쿠스코 전체에 약 1,200 곳의 크고 작은 유적지와 보존지역이 있음
- 지역과 역사지구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산하는 수공예품 같은 유적과 관련된 재료들을 생산하면서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음
- 문화재 관리국 참석자
 - Mg, Maritza Rosa Candle(쿠스코 관리 담당) 외 4명
- 공부청은 고대 국가 중 “백제”라는 국가의 중심도시이자 유네스코 지정 도시로, 쿠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쿠스코의 역사와 도시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자 방문하였음
- 공부청 말고도 많은 지역에서 방문하는데, 쿠스코가 어떻게 보존되고 개발되는지 알고자 방문하고 있으며, 쿠스코는 여러 사람들에게 쿠스코와 역사를 알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함



2)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쿠스코 보존 노력과 과정 관련

- (공주시/고도육성팀장) 세계적 유산인 쿠스코는 관리주체가 어디(정부 혹은 지방 정부)인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쿠스코는 지방정부인 쿠스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청양군/군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지방정부에서만 관리하는데, 쿠스코 안에서도 13개 도시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도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정부인 쿠스코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공주시/시장)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역사자원의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쿠스코 관리를 위한 예산은 어디서 마련되고 있는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중앙정부 기구로 문화부가 있고 쿠스코 관리를 위해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결국은 쿠스코에서 충분히 재정 마련이 가능한 상황임
- (충남연구원) 페루에서도 문화재 관리를 위한 법이 있겠지만, 쿠스코와 같은 세계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나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마추픽추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관리 프로그램/기준에 맞춰 관리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보전,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음
- (부여군/인구청년팀장) 쿠스코 지구는 원형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등에 대응한 별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쿠스코에 있는 모든 지역을 쿠스코 문화부에서 관리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되면 쿠스코 문화부에서 검토 후 허가를 해 주고, 세계문화유산 프로그램에 어긋나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별도 지원 내용 없음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경우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주민의 요청으로 인한 변경 사항에 대해 평가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음
- (부여군/부군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 수준은 어떤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쿠스코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항상 유적지나 문화유산을 관리하면서 신경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음
- (부여군/전략사업과장) 쿠스코 유적지 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궁금함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세계문화유산 관리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
- (충남연구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관광을 통해 자칫 문화유산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유적지 내 관리 지구와 관람 지구를 철저히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음
- (청양군/행정지원담당) 마추픽추가 온라인으로 입장이 우선되면서, 관광객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세계문화유산을 보존과 관리한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관람객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로는 보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진하고자 할 예정임
- (공주시/시장) 관광측면에서 쿠스코와 마추픽추 등에 대한 별도 전략이 있는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문화부는 문화재의 관리 측면을 담당하고 별도 홍보부서가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확대 및 편의 증진, 이를 통한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음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쿠스코를 관리 및 보존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높은 수준의 보존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려 주면 좋겠음
- (공주시/고도육성팀장)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인 문화재를 보존 및 정비하는 것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공주시/시장)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에, 쿠스코와 같이 관광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쿠스코는 다른 것은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 (청양군/군수) 관광수입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2022년까지 관광수입을 쿠스코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는데, 금년 1월 부터 중앙정부에 예산을 전부 보내고 있음

3) 시사점

- 문화재 관리와 보존, 관광적 활용은 결국 적정한 예산과 다양한 참여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문화재와 밀접한 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방안 모색 필요
 - 특히 행정과 주민 간 협력과 상생 노력이 함께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철저한 준수가 필요함

3. 마추픽추 문화재관리국 / 지역주도 역사와 개발, 재생 II

1) 개요

- 마추픽추 문화재관리국은 마추픽추에 대한 시설과 인력, 관광객 담당
 - 쿠스코 문화재국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관리방안 수립
- 현장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로 관광객의 요구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중



2)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시장) 지방과 정부가 함께하는 노력, 특히 관광객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 (마추픽추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관람객 편의증진에 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대표적인게 순환버스를 도입한 것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 중임
- (청양군/군수) 관광이 활성화되었는데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노력은 없는지?
- (마추픽추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이곳 주민들도 함께 관광객 편의 증진 노력 중이며 현재 관련한 시위도 함께 해주고 있음



3) 시사점

- 공부청 문화자원 개발 시 주민과의 협력체계 강화
- 공부청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보교류 및 공동협력 추진 필요

Ⅳ. 정책현장 답사 및 인터뷰 주요 내용

1.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일자리 창출 전략 필요

1) 상파울루 개요

- 상파울루는 전 세계 1위의 인구를 지닌 도시로, 빈부격차가 심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임
 - 저렴한 인건비(평균 400달러 수준으로 정부에서 월 100달러 지급)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다수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실제 많은 영업시설에서 영업 규모에 비해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월급과 수당제 병행)
- 저소득층의 빈민화에 대응한 다각적 노력 중
 - 저소득층의 노숙화 방지를 위해, 앞서 언급한 취업 확대 만이 아닌, 빈민계층을 위한 "주거단지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노력 추진 중

2)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시장)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 취약계층 활동 통합거점 조성
- (청양군/군수) 지역 평생교육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충남연구원) 인구소멸,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기추진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내 사업 간 융복합 추진 필요
 -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일자리가 연계된 패키징 사업 발굴
 - 금번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 발굴 및 제안(예, 지역 고령자 일자리, 생활용 주거타운 조성(일본 고령자 커뮤니티 주거 참고 등) 등) 필요

3) 시사점

- 취약계층 활동 확대를 위한 거점 마련을 위해, 지역 내 학교 시간대별 유휴공간(강당 교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층의 활동(예, 교육, 문화 등) 거점 조성
-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학교시설 내 "취약계층 활동거점시설" 조성 방안 모색
 - 학교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별도 시설을 신축하게 되고 이는 기존 시설과의 중복, 운영관리 과다 및 비효율화, 계층 간 시설 구분 등 다양한 문제점 노정 우려
- 3개 시군 협력 인구소멸 및 균형발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2. 산토스 구장 박물관 : 기존 자원의 역사가치 발견과 Reuse

1) 개요

- 산토스 구장은 "펠레"라는 역사적 인물과 이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조성된 역사자산임
- 찾아오는 관광자원으로서만이 아닌,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다큐멘터리, 유튜브 등), 역사적 가치에 대한 기억 제고(경기장 내 박물관 설치 등), 현재 관점에서의 재 활용(주민 참여형 홍보와 카페/상품점 운영 등 지역사회 자리매김 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고도육성팀장) 지역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모두가 협력하는 기록화 노력 필요
- (부여군/전략사업과장) 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예, MZ세대에 맞춘 캐리커처 제작, 기존 시설 연계 시민 참여형 일자리(카페, 마켓 등) 연계 등)
- (충남연구원) 기록화의 대상에 대한 독립적 거점화만이 아닌, 주변지역의 유사시설, 연계시설 조성을 통한 “점”을 “선”과 “면”으로 연계-확대하는 전략 모색 필요
 - 이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만이 아닌 지역 주민 및 청년 유입 등 모색, 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검토

3) 시사점

- 도시재생 관점에서, 백제문화단지 주변(부여군), 제민천 주변(공주시), 청년거리 주변 원도심(청양군)에 대한 재생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시설물 중심의 개발에서, 시설물과 주변지역, 인적자원 등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중장기 운영관리계획 수립 모색

3. 커피박물관 : 지역자원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자산화

1) 개요

- 산토스 지역은 역사적으로 항구-철도-커피를 통해 활성화되어온 지역임
- 이러한 역사적 가치/사실을 활용하여, 커피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을 하나의 역사지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가로경관 개선, 철길 보전 등)을 계속하고 있음



- 조성된 역사지구를 활용해 국내외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재생된 거점 시설 등은 창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2)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청양군/군수) 기존 자원의 역사적 가치, 인물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이나 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자원화 노력
- (부여군/부군수) 기존 자원의 브랜딩 전략을 모색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부청은 "백제" 등 역사적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
- (공주시/시장) 공부청 자산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딩 전략의 모색 필요
- (충남연구원) 유명하지 않은 것을 특수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과 사업 발굴 필요

3) 시사점

- 공부청의 대내외적 인지도 및 방문목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지역 브랜딩을 위한 중장기 공부청 브랜드 분석 및 고도화 전략 등 마련

4. 쿠리치바 님비시설 재생 사례 탐방

1) OPERA ARAME(오페라하우스) / 님비시설 재생 및 관광자원화 I

① 개요

- 님비시설(채석장)을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이자 지역 대표 관광자원 재생
- 채석장을 활용한 오페라/주민 휴식(식물원 등)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쿠리치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 모델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충남연구원) 공주 고마나루 등에 소규모 음악시설, 휴게시설(청년 운영 카페 등) 조성으로 세종 등 인근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지역 주민 및 청년의 일자리 창출 도모

2) 지혜의 등대 / 님비시설 재생 및 관광자원화 II

① 개요

- 관광객 대상으로 1995년 조성된 도서관으로, 인터넷 등의 활용이 가능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이용이 높은 수준임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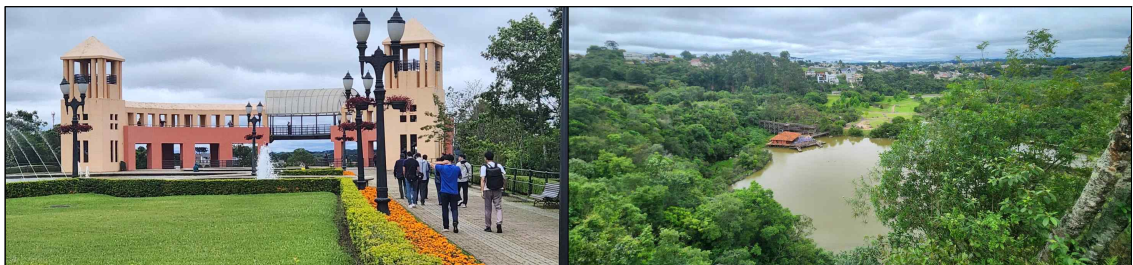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작은도서관과 같은 성격인 듯 한데, 지역 특성 및 시설의 목적성 등을 등대로 형성화한 모습이 이색적이고 참고할 만함

- (공주시/시장) 국내 작은도서관 조성 시, 지혜의 등대와 같이 랜드마크적 성격이 도입될 수 있는 디자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듯함

3) 재생의 관점에서 본 탕구아 공원 / 님비시설 재생 및 관광자원화 III

① 개요

- 채석장이었던 곳으로, 현재는 생태적 환경공원으로 조성됨
- 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의 재생이 이루어져, 주민 및 관광객의 관심과 방문 증가
- 이를 통해 공원 주변으로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있음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청양군/군수) 청양 구봉광산도 님비시설이었는데 118홀 파크골프장으로 재생됨
 - 현재 청양의 운곡 채석장 등의 재생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부여군/부군수) 채석장 재생 후 관광활성화 및 지역의 자연과 생태수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 더불어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도 양호하다고 판단됨

4) Escola Municipal de Sustentabilidade(지속가능한 시민 학교)

/ 님비시설 재생 및 주민 환경역량 강화 거점 조성

① 개요

- 님비시설의 재생을 통한 주민의 인식과 역량제고 노력
- 채석장을 활용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다가 취소된 이후 현재와 같은 생태 및 환경 체험 및 교육장으로 조성(지속가능한 시민 학교)
- 기존 채석장 내 시설(가로등 등)을 활용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조성
- 현재 초등학생 등에 대한 생태 및 환경 체험 및 교육시설 조성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청양군/행정지원담당) 도시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생태 환경 조성 필요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 (청양군/군수) 공부청도 생태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생활 속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충남연구원) 청양군 내 운곡 채석장, 천장호 등 기존 시설과 앞으로 조성될 기후환경 연구소를 연계한 기후 및 환경, 생태 체험 및 교육 거점 조성 방안 모색도 필요함
 - 금번 청양군 중장기계획 수립 시 기후 및 환경, 생태에 대한 청양군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쿠리치바 식물원 / 님비시설 재생 및 관광자원화 IV

① 개요

- 도심 속 식물 정원의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 도심 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원이 조성된 후 지역이 활성화된 사례로, 공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환경 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후 주변으로 주거단지가 확장되어 조성되고 있음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시장) 공주 미르섬을 대상으로 식물원과 같은 시민을 위한 휴식, 체육활동,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세종~석장리~미르섬~국가해양정원을 있는 금강변을 경관적&관광적 환경 재정비 노력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함
- (충남연구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할 때, 3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및 시설 계획이 필요하며, 식물원과 같이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한 공간 및 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여군/부군수)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식물원에서와 같이, 3개 시군 주민의 참여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듯함
- (청양군/군수) 지금부터라도 농식품부 및 국토부 사업, 평생교육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정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대한 방안 모색 필요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향후 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교육 및 체험에 대한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함

6) 시사점

- 현재 지역의 낡은 시설로 방치된 시설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낡은 시설로 재생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역 내 시설의 도입 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만이 아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이 도입될 수 있는 디자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듯함
- 기후위기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청양의 기후환경연수원 유치와 연계하여 3개 시군 주민의 환경 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 거점 조성 검토 필요
- 현안인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3개 시군 협력방안, 시민 환경역량 제고 방안 모색

5. 이과수(큰물) / 자연자원, 관광자원화

1) 개요

- 원주민들의 언어로 Igu는 ‘물’, Acu는 ‘장대함’이라고 함
- 세계 3대 폭포 중 가장 장엄하다고 하는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

과이의 3나라의 국경에 위치해 있음

- 현재 브라질 측 17만 헥타르와 아르헨티나 측의 22만 5천 헥타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청양군/군수) 이과수라는 자원이 세계적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자원에 대한 발굴과 보존, 명품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청양 구기자와 같은 지역 자원의 국가중요농유산 혹은 세계적 농업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음
- (부여군/부군수) 자연 조건(금강, 칠갑산, 계룡산 등) 및 역사자원(백제 등)을 정교하게 연계하여 하나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음
 - 이러한 콘텐츠를 앞으로 추진하게 될 국가해양정원에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음
- (충남연구원) 공주와 부여가 금강을 활용한 국가해양정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양도 칠갑산, 천장호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3개 시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청양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고, 3개 시군이 모두 균형발전사업을 추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연계된 내용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음

3) 시사점

- 지역자산에 대한 명품화 방안에 대한 3개 시군의 고민과 협력, 소통 필요
- 지역자산과 역사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6.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발파라이소

1) 베라몬테 와이너리 / 지역자산 활용 브랜딩 및 6차 산업화

① 개요

- 친환경 와인생산 지역, 무농약(알파카 등 활용 곤충, 잡초 제거) 사용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청양군/군수) 3개 시군이 친환경 농산물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공부청 농산물의 친환경 수준을 높이고(예, 칠레 와인, 홍성 오리농법 등)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 및 브랜딩 전략 강화 필요
 - 이때 관은 지원자 역할이어야지 주도하면 현재와 다른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부여군/부군수) 균형발전사업에서 3개 시군의 통합 전략 및 사업 발굴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을 주제로 한 특화전략사업 발굴 및 브랜딩에 대한 사업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공주시/시장) 브랜딩을 통한 지역 상품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확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청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센터(대전)에 3개 시군 농산물을 공동 판매하고 통합 브랜드로 생산 및 제공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청양군/군수) 농산물의 규모화 및 명품화, 농민 간의 협의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로 지금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는 작물을 발굴하고 규모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공주시/시장) 주민이 주도해야 하는 분야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관도 함께 참여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부청생활권협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빈야 델 마르(바다의 와인너리) / 관광자원화 및 브랜딩화

① 개요

- 와이너리 생산지의 배후 주거지/휴양지 성격의 부촌 지역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시장) 공주산성시장 등 5일장이 개최되는데 단순한 상품 판매, 주민의 참여 제약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상품 활동과 특성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청양군/군수) 주민주도의 지역재생이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니즈와 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충남연구원) 부여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방문객의 입장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브랜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Cerro Alegre 벽화 골목 / 주민참여 및 구도심 브랜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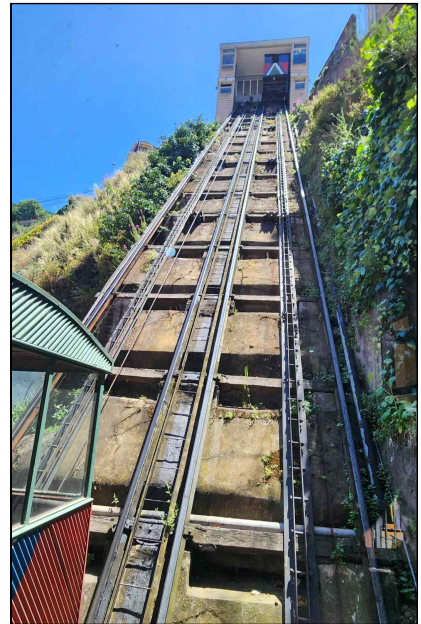
① 개요

- 변화한 지역이었지만 시대적 흐름 속에 낙후되었는데, 예술인 등 빈민들의 입주가 된 이후 벽화 등 예술 중심의 원도심 재생이 이루어진 지역
- 2006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청양군/군수) 사소할 수 있지만 벽화마을처럼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모여 하나의 멋진 예술작품이 되거나 지역의 대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공주시/시장) 주민 역량 제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좋겠음
- (공주시/시장) 원도심 정비는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자산(백제, 한옥, 청년, 자연 등)을 활용한 특성화 방안 검토도 필요하며, 원도심 정비를 할 때는 주민의 동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될 뿐이며
- (부여군/부군수) 원도심 재생은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업 성공 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이 매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함: 이때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 삶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관의 참여는 사업의 자율성이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양군/행정지원담당) 원도심 재생 시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교통수단도 조성 필요
 - 벽화마을의 오래된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지역 모습을 보여주거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지형에 순응한 개발을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이러한 교통수단이 단순 관광상품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 속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청양군/군수) 벽화마을처럼 공부청에서도 예술성이나 상품성을 갖춘 벽화마을이나 골목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공주에서는 산성동 및 중동, 청양에서는 청춘거리, 부여는 시장골목 등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충남연구원) 벽화마을 등 거리의 특성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술성이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 특히 청년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이나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총괄자가 아닌 지원자, 협력자의 역할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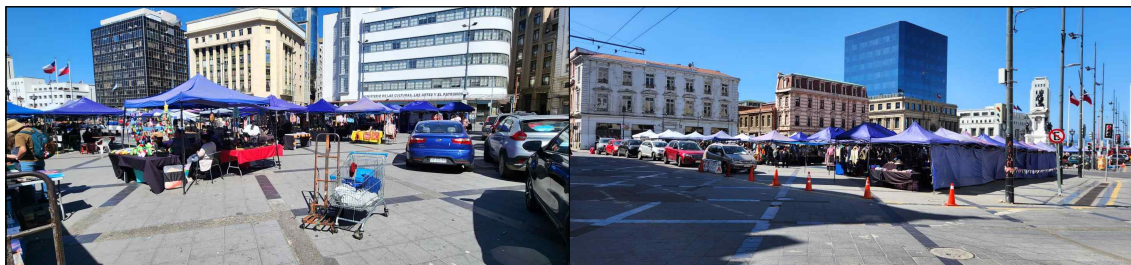


- (청양군/군수) 시설에 대한 이용자 흥미와 관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응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구상 필요
- (공주시/시장) 자원의 국가 및 세계유산 등재도 중요하지만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고 이를 준용한 체계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청양군/행정지원담당) 칠갑산 및 계룡산 등 국립 및 도립 공원에 대해 이과수와 같은 생태와 문화, 역사가 고려된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임

4) 소토 마요로 광장 / 역사거점 활용 지역상권 활성화

① 개요

- 해군 중심지이자 국제무역항으로, 현재는 광장을 활용한 주민 휴식, 주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공간으로도 활용 중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시장) 공산성 밑이나 미르섬 등 기존 전통시장 말고 주민/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플리마켓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부여군/부군수) 프리마켓 시, 5일장 상인회만이 아닌 지역 상인이나 주민, 청년 등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청년 등의 주도로 특성화되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청양군/군수) 낮에만 개최하지 말고 야행화하는 방안도 검토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의 방문 목적을 높일 필요도 있음
- (부여군/전략사업과장) 시군별로 개최하는 날짜를 달리하거나, 시군별 참여자를 공동 모집하는 방안 등 협력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시사점

-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레 상권이 형성되는데 이를 단순 상업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의 문화,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지역 유희자원이라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결합된 재생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지역은 방치된 공간이지만 해변이라는 특성과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결합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 및 놀이 공간이 되고, 이를 주민의 프리마켓 활동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3개 시군이 함께 하는 통합 브랜드 개발도 필요하고, 농업의 주체인 농민 간 협의를 통한 통합적 개발 및 산업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사업의 특성화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특히 청년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이나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

6.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쿠스코

1) 아르마스 광장 / 역사와 관광, 브랜딩

① 개요

- 쿠스코는 케추아어로 배꼽이란 뜻인데 13세기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중앙 안데스 일대를 지배한 잉카 제국의 수도로, 번영의 절정기를 맞이하였던 당시의 쿠스코는 정연한 시가지, 아름다운 건물, 거대한 신전 등을 보유하였음
- 쿠스코의 아르마스 광장은 구시가지의 중심지이며, 광장을 둘러싸듯이 옛 건물들이 남아 있고 광장 한구석에는 피사로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는 지역임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시장) 하나의 지구에 경관적 통일감을 갖는 것은 지역의 장소성을 높이거나 관광적으로 매력적인 브랜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공주 한옥마을이나 기존 구도심(농협과 주유소 뒷편 등)을 통일감 있는 경관지구로 형성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청양군/군수) 청춘거리도 과거의 청양 모습을 형상화하여 통일감 있게 조성 필요

- (공주시/고도육성팀장) 한옥 마을은 말 그대로 한옥의 집합으로, 역사적 경관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청양군/군수) 공산성 주변을 한옥을 중심으로 이미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부여군/전략사업과장) 통일된 경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거주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광객을 위해서는 휴식이나 관람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주시/홍보미디어담당) 한옥마을지구를 포함한 구도심 전체에 대해, 경관적 통일감 특히 색채와 디자인의 통일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지역주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함

2) 마추픽추 / 역사자원, 관광자원화

① 개요

-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우루밤바강을 따라 114km 내려간 지점에서 수면 위로 부터는 400m, 해발로는 2,280m 지점에 세워진 5km 크기의 잉카 유적임
-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에 수록되어 있음



② 인터뷰 및 협의 내용

- (공주시/시장) 스페인의 실수로 남은 역사자원이지만,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백제의 역사를 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지역의 찬란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시설 명품화. 자별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희소성(시간대별 이용 등) 부여도 필요할 듯
- (공주시/고도육성팀장) 천혜의 자연자원이라도 보존을 어떻게 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

- 공주 공산성도 고도의 역사로 마추픽추와 같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 (부여군/전략사업과장) 공산성만이 아니라 부소산성 등 백제의 유산이 가득하지만 현재 사람들의 트렌드를 고려한 관심을 끌 요소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
- (공주시/시장) 금번 백제한옥촌과 같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아이템 접목 필요
 - 백제한옥촌을 통해 기존의 백제 문화 거점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 규모에 대한 확장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금번에 마련되어야 함
- (충남연구원)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3개 시군이 백제문화촌 및 거점조성을 함께 하기로 했으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군별 특성과 발전 방향을 잘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단기간의 계획이 아닌 중장기 국정 과제화 하는 방안도 모색 필요
- (공주시/홍보미디어담당) 백제문화촌 등 역사 및 관광 거점도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트렌드와 수요를 반영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 필요
- (충남연구원) 실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세종, 대전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부청, 백제 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은 이들의 수요와 현재 이용 패턴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부여군/부군수) 조금 다른 말이지만 우리가 탔던 '협괴'처럼 교통도 하나의 흥미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여수상버스와 같은 새로운 흥미거리이자 교통수단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청양군/군수) 다른 무엇보다 3개 시군은 관광인 교통, 도시계획은 공동의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해야하는데, 국가해양정원을 시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공부청생활권협의회가 단순한 사업적 협의만이 아닌 지역 전체에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함
- (충남연구원) 분명 공모사업은 경쟁해야겠지만, 경쟁만이 아닌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음
 - 가장 가까운 균형발전사업 부터 경쟁도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청양군/군수) 우리는 모두 안 가지고 있는 시설은 없는데, 무엇을 추가하기 보다는 옆 지역 시설을 공동이용 할 수 있거나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 (부여군/부군수) 이것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생활권이고 활성화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위해서는 많이 만나고 소통해야 하고 통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3) 시사점

- 공부청생활권이 있어서 나래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시설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3개 시군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시장, 군수가 자주 만나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실무부서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3개 시군 협력 강화를 위해 도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2기 사업 내 도 제안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상생 협력 측면에서 다른 사업도 시군별 경쟁만이 아닌 함께 하는 걸 전제로 사업 간 연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3개 시군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해, 마을회관, 생활SOC를 지역별로 조성하는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 3개 시군 간 용이한 연계를 위해 교통과 프로그램 무엇보다 사람을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V. 공주 · 부여 · 청양생활권 활성화 방안

1. 3개 시군 공동협력 체계 구성

- (공주시/시장) 3개 시군 행정경계를 초월한 "생활권단위"의 정책과 협력 마련 필요
- (청양군/군수) 3개 시군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공동협력(예, 3개 시군 접경 지역 내 공공기관 이전 단지 조성, 산림자원연구소 등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공동 대응 등)
- (부여군/부군수) 3개 시군의 생활SOC를 통합적으로 이용/연계하는 방안(예, 3개 시군 보건소에 대한 3개 시군 주민의 공동이용, 공주 사이버시민제도&시군별 고향 사랑기부제 공동 활용 등) 모색 필요
- (충남연구원) 시군 생활권협의회가 공부청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시장, 군수, 실무진 등)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균형발전이나 인구 소멸, 세종 확대 등에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이라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정책방향의 일관성 및 지역 간 연계성 제고

- (청양군/군수) 개별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은 서로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 정책이 1) 정권이 변경되어도 항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2) 3개 시군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주시/시장) 청양군에서 금번에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3개 시군의 협력방안이나 정책적 연계가능성을 담는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음
- (부여군/부군수) 3개 시군이 정부·도 정책에 대해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음

3. 공모 중심의 도 정책 공동 대응

- (부여군/부군수) 스마트팜, 균형발전 등 도의 핵심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확보나 지역성 고려 등이 미흡한 실정임->이에 3개 시군이 관련 사업을 공동 대응(예, 백제 관련 도 제안사업 발굴, 스마트팜 대규모 단지화&단지 간 연계 &청년 공동 유입 등)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4. 3개 시군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

- (공주시/시장)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나 청년 단체 등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여군/부군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색을 위해, 3개 시군이 함께 유입만이 아닌 유입 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청양군/군수) 3개 시군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 (충남연구원) 장기적 관점에서 충남도 내 도로체계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상파울루와 같이 도시의 결절점, 교통 교차점 등에 시군별"물류거점화"에 대한 방안 모색 필요
 - 균형발전 사업과 연계하여, 청양 농업 물류, 공주&부여 드론 등 4차 산업 물류 등

5. 충남민이 찾는 충남 관광 활성화

- (공주시/시장) 충남민이 먼저 충남을 찾아가도록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함
 - 충남에도 볼거리&즐길거리가 많은데, 충남민도 찾지 않는다면 누가 올지 걱정됨
- (부여군/부군수) 충남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충남연구원) 충남형 위케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6. 주민 삶 수준을 고려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필요

- (충남연구원) 지역관광 자원 개발 시, 공익을 위한 무료 혹은 저렴한 이용료 책정이 필요하지만,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금액에 대한 책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와 시설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공주시/시장) 실제 많은 주민과 세종시민이 방문하는 금학생태공원 내 쉼라인 등 신규 시설의 조성 시 적정 수준의 이용료 책정과 이에 따른 양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6.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 필요

- (공주시/시장) 어떤 사업이든 공무원 사기가 중요함
 - 공무원 사기증진을 위해 안식년 제도 통합, 성과제(공모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 등) 확대, 임무형공무제도 운영(실무자가 주도하고 사후 보고하는 방식 등), 우수직원 해외 선진지 연구제도 등이 필요한 시점임